

투데이 칼럼

### 트럼프 당선 이후 한반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7기 행정부에서 첫 임기 때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동맹으로서 더 많은 분담과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한미 관계에 예측 불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더 이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안보 환경과 관심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당장 우선순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상황이 상당히 극적으로 변했다.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로 훨씬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국내외의 정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로 인해 북한과의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에 대한 전망이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북한 무

기 개발과 관련한 북러 관계나 한반도와 타이완 양안 갈등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 정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한반도 위협을 접면에 나서 해결할 의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국내 현안과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교 정책에 개인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 타이완, 중동 같은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 초기에는 북한과의 정상 간 만남에 관심이 덜할 수 있다. 만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워싱턴보다는 평양 쪽

에서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부나, 국방부, 중앙정보국(CIA)의 주요 직책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에 대한 의중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인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간 교류를 개인적 친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김 위원장과 개인의 관계가 북미 간 소통 채널 형성에 도움이 됐음을 자주 언급해온 점을 미뤄볼 때, 향후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9년부터 지금 현재 북한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통해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매우 강력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 아래서 한미 관계의 길이 더욱 험난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에 더 많이 청구함으로써 한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역내에서 부싱하는 중국의 위협 감소를 위한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 주둔 전략의 일부로 보지 않는 한 북한의 위협에만 맞서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출신 당국자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동맹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줄곧 강조해왔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 허용은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회를 포함한 외교정책 전반의 지배적 견해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 사설

#### 조용히 글 쓰고 싶은 한강 작가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발표 후 스웨덴 공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면서 "이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강은 이 방송과 자택에서 인터뷰하고 "나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1~12일 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왜 축하하고 싶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강은 "아니다. 아들과 함께 카탈리(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축하했다. 축하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기자가 당신의 부친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딸이 세계의 상황(우크라이나 전쟁 등)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언급하자 한강은 "뭔가 혼란이 있었

던 거 같다. 그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 드렸을 때 아버지는 마을에서 사람들과 큰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큰 잔치는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끔찍한 역사적 사건에 직면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말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분명히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 "적어도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아주 분명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한강은 글을 쓰는 것이 무용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1년에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들여 계속 글을 쓰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칭송받는 '맑은소리 봉사단'

대한노인회 전북자치도연합회의 '맑은소리 봉사단'의 봉사 활동이 칭송을 받고 있다. 맑은소리 봉사단은 회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지역축제 등에서 오키리나, 하모니카, 그리고 합창으로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야외음악회, 전주시 단오축제 등 지역 행사에 초대되어 무료 공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한다. 맑은소리 봉사단은 지난 9월 28일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오키리나 공연을 했다.

평생 학습에 대한 시민의 열정을 확인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전주시 대표 평생 학습 축제인 '전주시평생학습 한마당'에서 공연을 한 것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우리나라', '베사메무초 3곡을 연주했다. 청중들은 오키리나의 맑은 소리에

감동하여 노래를 따라 불렀다.

앞서 6월에는 건지산에서, 7월에는 금산사 공원에서 각각 버스킹을 했다. 9월 3일에는 전주기독교병원에서 환우의 쾌유를 기원하는 공연을 하였다.

오키리나(ocarina)는 맑고 고운 음색을 내는 이탈리아의 전통 관악기다. 토기로 만든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사육제 호루루기에서 발전해 나왔다. 흔히 새 모양으로 되어 있고 1~2음만을 낸다.

이원희 단장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다채로운 공연을 위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합회 노인지원봉사지원센터 장은경 센터장은 "맑은 소리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맑은소리 봉사단의 지속적인 봉사 활동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 독자제언

#### 아동학대 예방의 날, 가장 큰 예방법은 '관심'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세계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것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주간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22년 46,103건에서 2023년 48,522건으로 5.2% 증가했으며, 2021년 대비 줄었던 2022년을 빼면 최

근 5년간 늘어난 추세가 뚜렷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중북학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정서학대 43.1%, 중북학대 28.7%, 신체학대 18.3%, 방임 7.7%, 성 학대 2.3%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란 대부분 언어적으로 구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다양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욕설이나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 표현, 차별하거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

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짐을 재우지 않거나 추운 날에 밖에 내놓는 것, 감금이나 약취 또는 어린이에게 노동하게 하여 착취하는 것 등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를 살펴보면 혈연관계인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 비중은 2019년 75.0%에서 2022년 82.7%, 2023년 85.9%로 점차 늘어나는 양상으로 이에 따라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도 '가정 내'가 82.9%로 최다였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높고

점점 늘어나는 만큼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육 방법 등을 교육에 참여하여 자칫 잘 못 된 교육과 훈육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면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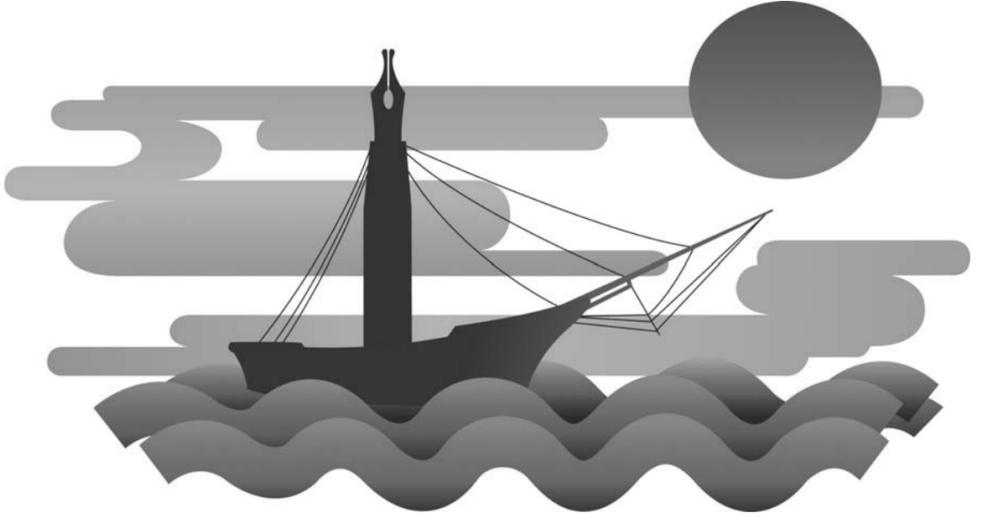
우리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